

주간 아시아, '일본에서 가장 인기있는 한국 연기자' 설문조사

열도 사로잡은 '박서준 클라쓰'

(설문조사 남자연기자 인기 1위)

'미남...' 장근석 2위...현빈은 3위
女연기자 손예진-한효주-박신혜순
로맨스+판타지물 꾸준한 인기장르

최근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드라마가
일본 한류 열기를 재점화하고 있다. 새로
운 한류 시대의 개막을 점치는 이들이 많
다. 현지 유력 시사주간지인 '주간 아사
히' 최근호가 관련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
를 2주에 걸쳐 실었다. 일본 한류의 어제
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여다보게 하는
또 하나의 기능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근석과 현빈 그리고 손예진
주간 아시아는 24일자와 31일자에서 각
각 박서준과 장근석을 표지인물로 내세우
며 일본인에게 가장 인기 많은 한국 연기
자를 설문조사로 선정했다. 6월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514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남자 연기자로는 '이태원 클라쓰'의
박서준에 이어 '미남이시네요'의 장근석
과 '사랑의 불시착'의 현빈이 각각 2·3위
에 올랐다. 여자 연기자는 '사랑의 불시착'
의 손예진이 1위, '봄의 왈츠'의 한효주와
'미남이시네요'의 박신혜가 2·3위였다.

남자의 경우 "로맨틱 코미디의 꽃미
남"이 많지만, 또 다른 배경이 있다. 10여
년 동안 현지 인기를 모아온 장근석은 올
해 5월 제대 이후 활동 기대감이, 현빈은
'사랑의 불시착' 속 "용기 있는 군인과 실



박서준



장근석



손예진

제 이미지의 일치함"과 "꽃미남 이미지
탈피"가 각각 작용했다.

인기 조연 연기자도 꼽았다. '나의 나
라'의 안내상이 1위였고, '인생은 아름다
워'의 김해숙과 '사랑의 불시착'의 김선영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꾸준한 활약으로 얻은 팬덤"

설문조사 응답자 5149명의 98.5%가 여
성으로 50대 40%, 40대 27%였다. 현재
일본 한류의 주 소비층이다. 이들이 내민
결과는 한류의 성과와 향후 흐름을 읽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권상우와 공유가 각각 남
자 연기자 4·5위였다. 잡지는 권상우를
"눈물의 귀공자"라며 2003년 드라마 '천
국의 계단'으로 얻은 인기를 언급했다. 공
유도 2007년 '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끝
여당인 인기를 '도깨비'로 굳혔다.

여자 1위 손예진은 2001년 드라마 '맛
있는 청춘'을 거쳐 2004년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로 15년 동안 현지 한국영화
최대 흥행작의 주인공이다. 한효주도
2006년 '봄의 왈츠'에 이어 2010년 NHK
를 통해 선보인 '둥이'로 "자연스러운 아
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받아왔다.

한류스타들이 두터운 팬덤의 깊고 오
랜 '충성도'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한류를 점화한 2002년 '겨울연가'의
주인공 '윤서마' 배용준이 연기자보다는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졌다는 점, 권상우·공유·손예진 등
이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더
욱 그렇다. 그만큼 꾸준한 활동의 중요성
을 새삼 인식하게 한다는 평가다.

●"로맨스+판타지 그리고 다양한 장르"

주간 아시아는 또 현지 인기 한국드라

마도 설문했다. 2012년 SBS '옥탑방 왕세
자', 2017년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순
이었다. 2009년 '미남이시네요'와 '천국
의 계단'도 꼽혔다.

대부분 판타지 로맨스이거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순애보 이야기이다. 잡지는
"타임슬립과 판타지, 시대극이라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 3요소를 갖춘 작품"으로
'옥탑방 왕세자'를 꼽았다. 이어 "치밀하
게 설계된 판타지 설정이 한류 드라마의
큰 강점"이라고 썼다. 다만 여기에 현실
적이고 보편적인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주간 아시아는 2004년 '대장금'부터 남
성 한류 팬이 가세해 '옥탑방 왕세자'를
거쳐 최근 '사랑의 불시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한류의 시대를 내다봤다. 다양한
장르로 폭도 넓어지고 있음을 가리켰다.

윤여기 기자 tadada@donga.com

One pick

유클리 핫플레이스



'다시 여기 바닷가' 뮤직비디오 촬영지 양호대 해수욕장.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하조대 해수욕장·용산 스카이비치... '썩쓰리' 뮤비 배경지로 여름휴가?

화제의 그룹 썩쓰리가 머문 곳이라면, 그 곳이 어디든 '핫 플레이스'가 된다.

여름 콘셉트를 내세운 썩쓰리의 뮤직비디오 배경지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썩쓰리 멤버인 가수 이효리·비, 방송인 유재석이 25일 내놓은 '다시 여기 바닷가'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강원도 양양군의 하조대 해수욕장이 대표적이다. 푸른 바다를 배경삼아 자유롭게 즐기고 웃는 이들의 모습이 가슴까지 시원하게 만든다.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리버티 스케이트보드 파크도 함께 들르기 좋은 '썩쓰리 명소'로 통한다. 평평잡힌 청바지와 농구복 등 스트리트 패션 아이템으로 치장한 세 사람이 이 곳에서 댄스 배틀을 벌였다.

이들이 13일 선 공개한 노래 '여름 안에서'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서울 용산구 스카이비치는 도심 속 휴가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멤버들과 객원 래퍼로 참여한 광희가 발랄하게 군무를 춘 장소이다. 선명할 푸른색 타일의 수영장과 미니 모래사장 등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낸 내부 공간이 특히 인기 만점이다.

유희재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K컬처 방역의 힘!' 영화 '인셉션' 등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테넷'이 8월26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사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 | 워너브라더스코리아

극장가 구원투수 '테넷', 내달 26일 세계 최초로 한국 개봉

3차대전 막기 위한 비밀 첩보물

감염병 확산 여파 속에서 전 세계 극장가의 '구원투수'로 기대를 모아온 '테넷'이 먼저 한국 마운드에 오른다. '인셉션' '인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한 '테넷'이 8월26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 관객을 만난다.

28일 미국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테넷'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에서 개봉한 뒤 9월 미국 등 70여개국으로 향한다. 시차를 고려한 전 세계 최초로, 할리우드 대작이 미국에 앞서 한국에서 선보이게

는 이례적이다. 앞서 두 차례 일정을 미룬 배급사 워너브라더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및 미국 내 확산세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K컬처 방역'에 새삼 시선이 쏠린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부분 영화가 촬영을 연기 혹은 취소하던 3월 현장 방역지침을 마련해 보급했다. 각 현장에서는 이를 철저히 지키며 작업을 진행해왔다.

영화촬영을 멈춘채 이를 지켜본 해외 각국 제작진은 한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지침으로 삼기도 했다. 실제로 이달 중순 황정민·현

빈 주연영화 '교섭'의 제작진이 요르단 로케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노력 덕분이다. '교섭'의 제작사인 영화사 수박의 신병수 대표는 "한국 촬영현장의 방역 능력에 대한 현지 당국의 신뢰가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버라이어티 역시 "감염병 확산으로 '테넷'의 미국 개봉 계획이 복잡해졌다"며 "한국 관객은 영화를 관람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현재 한국영화 '반도'가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넷'은 3차대전을 막기 위해 시공간을 넘나드는 비밀 첩보원의 이야기로, 멘델 위싱턴의 아들 존 데이비드 위싱턴이 주연했다. 윤여기 기자

즐거움 TV·독특한 TV...TV프로그램 (29일·수)

채널A 02-2020-3100 KBS 02-781-1000 MBC 02-780-0015 SBS 02-2113-5000 TV조선 1661-0190 JTBC 02-751-6000 MBN 02-2000-3114 EBS 02-526-2000 @재방송 □ 시각장애인용 위한 화면해설방송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including KBS1, KBS2, MBC, SBS, EBS1, 지역민방, 채널 A, TV조선, JTBC, and MBN. Columns include channel, time, and program title.